광주경총, 혜민스님 금요조찬포럼

“소중한 나 돌아보기…리더는 감사·여유가 삶의 기본값”

분별심 지양 청정심·긍정적 마음경영 강조
미소·숨 깊게 들이마시기·산책하기 등 제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리더는 세상에 대한 관심만큼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혜민스님은 지난 21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704회 금요조찬포럼에서 ‘기쁨을 삶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라는 주제로 마음경영의 핵심을 제시했다.

혜민스님은 송광사 구산스님이 좋은 가르침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던 예를 들면서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교의 관찰 수행을 예로 들며 “컵을 바라보는 존재가 따로 있듯, 몸·생각·감정도 모두 관찰되는 대상일 뿐 ‘진짜 나’는 아니다.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감정도 올라왔다 사라진다. 관찰되는 것은 나일 수 없다”며 “모양이 없지만 살아 있고, 몸 안팎을 두루 아는 지성(知性)이 바로 진정한 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사람들은 변화하는 것에 의지하니 불안하다. 기업을 경영하니 더 그럴 것”이라면서 “그러나 진정한 나는 변하지 않고 항상 청정하다. 성철스님이 말씀하신 ‘날마다 좋은 날’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고 짚었다.

스님은 반야심경의 ‘불생불멸’ 개념을 언급하며 “경제가 흔들리고, 인간관계가 틀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본래 성품을 알아차리면 마음이 안심된다. 혜민스님은 관심을 바깥으로만 보내지 말고, 180도 돌려 진또배기 나를 탐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뇌는 생존하기 위해 나쁜 것, 위험한 것에 더 빨리 반응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열 가지 좋은 일보다 한 가지 나쁜 일에 꽂힌다”면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분별심을 일으키는 내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고, 기쁨을 느끼기 위해 감사한 것을 의도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행복을 자꾸 미래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여유는 나중에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만드는 것”이라며 “리더로서 감사와 여유는 삶의 기본값이라 생각하고 직원들과 하루를 맞이하면 매일매일이 달라질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 감사한 일을 생각해보고 감사일기를 써볼 것과 15초 미소 짓기, 깊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기, 시간날 때마다 밖으로 나가 푸른 빛이 가득한 길 걷기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삶은 누가 결정하는가 늘 자문하며, 여러분이 지금까지 회사를 일궈온 대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창조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며 “눈 앞의 경험을 관찰하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본질을 파악하면 경영자로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통찰력이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혜민스님이 21일 금요조찬포럼에서 ‘기쁨을 삶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광주경총, 지역소멸 극복·정주형 인재 육성 ‘박차’

조선대와 전략적 파트너십
선순환 고용 생태계 구축
‘G-CEO 미래인재포럼’도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조선대학교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들의 지역 정주를 돕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성과를 높이고, 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기업 성장과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가 취업해 정착하는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통한 정주 취업률 향상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채용연계 △지역 산업 수요 기반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경총은 회원사의 채용 정보를 전달하고, 조선대학교는 이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는 선순환 고용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경총은 이날 ‘G-CEO 미래인재포럼 및 발대식’도 가졌다.

G-CEO 미래인재포럼은 향후 광주경총의 대표적 인프라인 금요조찬포럼과 연계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업의 장기적 인재 양성 전략과 미래 비전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대학과 기업 최고위급 간 협력 의지를 다지는 톱 다운 방식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기업이 살아야 교육도 의미 있는 시대다. 대학이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재 교육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정확히 반영하는 교육 체계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은 인재가 필요하고,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협약과 미래인재포럼이 지역 청년들이 광주에서 꿈을 펼치고,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실질적 계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이번 G-CEO 포럼을 기점으로 조선대학교와 함께 ‘G-HR(인사담당자) 포럼’ 등을 연이어 개최하며 산학협력의 범위를 실무 영역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경영자총협회는 21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조선대학교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들의 지역 정주를 돕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전남도, 11월 전통주에 죽향도가 ‘천년담주’

전남도는 11월을 대표하는 전통주로 100% 유기농 우리쌀 발효액을 저온 숙성 제조한 죽향도가의 천년담주(약주 15%)를 선정했다.

천년담주는 입안을 적시는 쓴맛과 과일향 단맛이 묘한 매력이 있다. 인공감미료를 전혀 첨가하지 않고 생대나무 분말과 갈대 뿌리를 사용해 깔끔함과 감칠맛이 일품이며 맑고 투명한 황금 빛깔이 매력적이다.

특히 꿀에서 오는 맛과 향이 풍부해 디저트와 훌륭한 조화를 이룬다. 다가오는 11월 가래떡데이에는 가래떡에 꿀을 찍어 함께 즐기면 더욱 맛있게 음미할 수 있다.

2020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약·청주 부문 최우수상, 2022년과 2024년 남도 우리술 품평회 약·청주 부분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하며 그 품질과 맛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제조사인 죽향도가는 1932년부터 3대째 전통주를 빚는 술도가다. 천년담주 외에도 대표 브랜드 ‘대대포’를 보유하고 있다. ‘대대포 블루, 대대포9’ 알코올 도수에 따라 라벨 색이 다른 막걸리와 증류식 소주 ‘죽향41, 담양 향기에 취하다’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은행, 시니어 고객 맞춤 금융서비스 제공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
주택연금 활성화 협약

광주은행은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남권지역본부와 광주·전남지역 시니어 고객의 자산관리,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은퇴자산 관리와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시니어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시니어 고객 대상 자산관리와 주택연금을 연계한 홍보 △양 기관 직원 대상 자산관리·주택연금 관련 상호 교육 △광주·전남 기관 및 사업체 대상 은퇴금융·주택연금 공동 강의·교육·홍보 등을 함께 추진한다.

광주은행은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 연계해 시니어 고객에게 더욱 체계적인 은퇴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 모델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종민 광주은행 부행장은 “주택금융공사 서남권지역본부와의 협약을 통해 시니어 고객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내 주택연금 활성화에 앞장서는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

광주은행은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남권지역본부와 광주·전남지역 시니어 고객의 자산관리,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